

# 광주시 제5기 노사민정협의회 본격 활동

위원 20여명 참석 출범식  
합작법인·법인 명칭 등 논의  
광주형일자리 성공 뜻 모아



20일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5기 노사민정협의회 2019년 출범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사 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할 광주시 제5기 노사민정협의회가 2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이윤섭 위원장(광주시장)을 비롯해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장, 강형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식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

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민간위원 3명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광주형일자리지리지 동차공장 합작법인 사업추진 현황과 신설 법인 명칭(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두고 광주형일자리 성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작법인 설립과 법인명칭 등에 대한 지역 노사민정의 뜻이 모아짐에 따라 광주시는 이를 발기인 총회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윤섭 시장은 "지난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간 투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후 약 7개월 만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며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주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청년13(일+삶)통장' 지원자 붐물

320명 모집에 996명 신청

광주시가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액의 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두 번째 '청년13 통장' 참여자를 18일까지 마감한 결과 320명 모집에 996명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13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의 복돈을 마련해주는 통장 사업이다.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에게 소액 단기 자산형성과 근로·생활 역량 강화

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청년금융복지 지원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한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자는 22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이어 오는 9월 4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통장 배부식과 약정식을 열 예정이다. 지난 4월 실시한 청년13통장 사업에는 160명 모집에 1038명이 신청했다. 손옥수 시 청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외롭지 않도록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강화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장애체험·에코백 만들며 사회적 가치 배운다

광주도시철도 '자원봉사체험존' 6개 역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가 지하철 테마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원봉사 체험존'이 시민 문화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 자원봉사 체험존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광주도시철도 6개 테마역에서 즐길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 10월말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열린다. 체험 이후

소감문 제출 시 봉사활동 인증도 받을 수 있다. 체험코스는 ▲국제구호(공평역) ▲인권(김대중컨벤션센터역) ▲재능나눔(남광주역) ▲재난재해구조·안전(금남로4가역) ▲5·18과 평화(문화전당역) ▲환경·문화(학동·중심사입구역)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체험, 태극기비즈공예, 심폐소생술 교육, 에코백과 친환경수세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여름방학 기간동안 양동시장역에 사회적경제 테마 체험을 특별히



추가 운영해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의 활동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도시철도 역을 시민의 생활체험공간

으로 공유, 소통과 문화를 통한 즐거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송정~나주시계 도로 확장 공사 완료 개통

5.7km구간 4차로→6차로

광주시는 송정1교에서 나주시계에 이르는 기존 4차로 5.7km 구간을 6차로 확장하는 공사를 준공하고 완전 개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구간은 국도 13호선 송정1교에서 평동산단 입구사거리, 국지도 49호선 분덕 교차로를 거쳐 나주시계까지 이르는 구간이다. 이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총사업비 718억원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도로 개설사업이다. 지난 2007년 12월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제1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광역도로사업으로 확정됐고, 광주시는 2012년 6월 공사를 착공했다. 공사착공 3년 만인 지난 2015년 12월 노후화돼 위험한 폭 2차로의 송정1교를 철거하고 폭 6차로로 재가설(434m)한 뒤 개통했다. 또한, 노후하고 교량 높이가 홍수위에 미달해 범람의 위험성을 안고 있던 평동산을 가로지르는 하산교도 재가설(49m)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번 광역도로 사업 준공으로 KTX광주송정역과 평동1,2,3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광주 광산구 송정권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연계하는 광역도로 교통망이 보다 편리하게 정비됐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과의 물류비 절감과 교통 혼잡완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기업과 각종 개발지구의 사회 경제적 이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송정권 도심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정1교-광주공항-무진로 구간 6.25km 4차로 도로 개설도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향후 송정권과 전남 서남부권을 잇는 광역도로교통망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광역도로 사업은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고 광주와 인근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동기를 부여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규 광역도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인간 활동이 담수생태계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내년 세계하천호수학대회 대비 DJ센터서 국제심포지엄 세계적 담수전문가 5명 주제발표

광주에서 세계적인 담수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광주시는 한국하천호수학회와 함께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하천호수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내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2020년 제35차 세계하천호수학대회'에 앞서 담수생태계 분야에 대한 심

도 깊은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세계하천호수학회(SIL·International Society of Limnology) 소속 독일 토마스 메흐너 박사의 '담수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 발표를 비롯한 해외 저명한 담수전문가 5명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는 이스라엘의 타마르 조하리 박사(갈릴리 호수의 장기생태변화 및 관리)와 독일의 토마스 메흐너 박사(담수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 호주의 마리아케 프라셀(호수의 건강성에 대한 수질모델링), 터키의 미리엄 베리오글루 박사(호수의 건강성과 기후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국내 하천분야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100여명이

우리나라 하천·호수의 건강함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을 전후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세계하천호수학회 관계자 주관으로 2020년 제35차 세계하천호수학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여건 조사도 이뤄진다. 2020년 8월23일부터 2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5차 세계하천호수학대회는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이라는 행사주제로 약 1500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회의다. 담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오염관리, 먹이사슬 등을 다루게 되며 약 400개 구두발표 석션과 300개 포스터발표로

구성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세계하천호수학대회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6년 제33차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에서 이스라엘을 누르고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물 순환 선도도시로서 도시의 물 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를 관통하는 광주천을 생태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정에 세계 일류 학회를 유치하게 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9년 국제 심포지엄과 2020년 제35차 세계하천호수학대회 광주 개최를 대비해 봄 조성과 홍보에 힘쓰고 행사 개최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 남구 장학회 35명에 장학금 3000만원

광주시 남구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서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역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제22회 남구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남구 장학회는 고교생 10명과 대학생 25명 총 35명을 선발해 장학금 3000만원(고교생 각 50만원, 대학생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접수는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남구청 7층 교육지원과 내 (재)남구 장학회 사무국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남구는 구비서류 검토와 적격심사 등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투  
자  
하  
실  
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으로 보장
- (주)오천경매.010-3605-5000